국토연구 제60권 (2009. 3): pp29~45

동남권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A Study on the Impact of FDI in Dongnam Region on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y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제1저자)
Cho Gyeonglyeob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rimary Author)
(glcho@keri.org)
김영덕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부교수(교신저자)
Kim Youngdu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Corresponding Author)
(ydkim@pusan.ac.kr)
정호진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박사과정수료후연구생
Jung Hojin Finished Ph.D. course, 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
(koreancoco@pusan.ac.kr)
이동우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박사과정
Lee Dongwoo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
(natas71@paran.com)

목 차

I. 서론

II. 동남권 FDI 유입과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III. 분석모형

IV. 동남권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 분석

V. 결론

www.kci.go.kr

I. 서론

개방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자본 중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FDI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와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구인투자에 대한 보조금제공, 조세지원 등 광범위한 투자유인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외자유치 확대정책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후 국내로 유입되는 FDI금액은 크게 늘었지만, 대한상공회의소(2006)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전 세계 FDI유입액 9,163억 달러 중 우리나라에 대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입액 기준으로 0.8%에 불과하다. 또한 200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수는 총 1만 4,669개에 달하고 있으나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동남권 지역의 외구인투자기업수는 전국의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는 자본, 노동 및 기술의 복합적인 결합체라는 점에서 다른 외국자본과 달리 지역 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FDI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2006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FDI는 유입된 지역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전파된 기술과 효율성이 파급되는 효과도 가지며, 이에 따라 개별 지역별로 차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FDI의 위치에 따라 국가 경제와 지역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재화, 자본, 노동의 국가 간 이동보다 국내 지역 간 이동이 보다 자유롭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외자유치 파급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 FDI가 동남권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동남권의 FDI는 일차적으로 동지역 내의 투자, 자본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지역 간 재화의 거래와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해 타 지역으로 그 효과가 파급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내 생산과 지역 간 거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김영덕·조경엽(2006a)이 개발한 다지역 동태적 일반균형모형(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MRDCGE)을 이용하여 동남권 지역의 FDI 유입이 지역별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투자의 상당부분이 외국인투자로 구성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투자에 대한 실효세율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주류로 Hall and Jorgenson(1967), Hartman(1981, 1984), Boskin and Gale(1987), Young(1988), Slemrod(1990) 등에 의해 오래전부터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는 자본 개방이 꾸준히 추진된 1990년대 이후 외구인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안종석(1994), 이용섭(1999) 등에 의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윤종·황윤진(2003)과 김군수 외(2006)에 의해서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특정 지역의 투자유치가 지역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www.kci.go.kr

본 연구는 특정지역 FDI의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점에서 김군수 외(2006)와 유사하나, 다지역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 연구와 다르다. 산업연관모형은 최종 수요 변화(FDI)에 따른 산업연관계수의 변화를 통해 유발효과를 추정한다. 그러나 연관분석모형은 외국인 직접투자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유발효과가 다시 수요부문으로 역류하는 효과를 감안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FDI의 직·간접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장윤종·황윤진(2003)과 같이 본 연구도 외구인투자가 국민계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FDI가 GDP, 투자, 소비 등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별 GRDP, 고용, 소비, 투자 등에 미치는 보다 미시적인 효과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동남권의 FDI현황과 우리나라의 FDI현황을 외국인기업의 실물투자를 추정하여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김영덕·조경엽(2006a)이 개발한 MRDCGE 모형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IV장에서는 동남권 지역의 FDI에 대한 모의실험결과를 수록하였다. 동남권 FDI가 지역별 GRDP, 투자, 소비, 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물론 GDP, 총투자, 총소비 등 국민계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동남권 FDI가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통해서 지역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과제는 V장에 수록하였다.

II. 동남권 FDI 유입과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2005년 도착액 기준으로 전국의 외구인투자액은 약 96억 달러이며 이 중 부산지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102건으로 전국의 3%인 약 3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부산의 외구인투자기업은 2005년 말 기준으로 484개로 전국대비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권 전체로 외구인투자기업수는 전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기업의 수로 보면 동남권에서 부산의 비중이 높으며, 울산(58개)과 경남(281개)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다.[1)]

외구인투자기업의 입지분포를 살펴보면, 외구인투자기업 3,180개 중 78.9%인 2,509개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21.1%인 671개가 입지하고 있어, 수도권 시·군·구에는 평균 38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시·군·구에는 평균 4개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4).[2)]

FDI의 지역유입은 그 지역의 민간고정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고정자본 형성은 지역생산을 증대시키고, 생산된 재화는 해외뿐만 아니

표 1 _ 지역별·연도별 외구인투자기업의 총고정자본 형성

(단위: 10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경남	245.6	114.5	43.7	42.4	44.5
부산	7.1	34.1	5.2	7.1	6.3
울산	121.1	203.2	298.6	352.7	181.0

1) 전국의 총 외구인투자기업수는 2005년 말 본사기준으로 1만 4,669개로 발표되고 있음(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2) 삼성경제연구소(2004)에서 조사한 외국인투자기업수는 산업자원부의 발표자료와 일치하지 않음. 이들이 제시한 외구인투자기업수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 표본인 것으로 판단됨.

www.kci.go.kr

표 2_ 동남권의 산업별 외국인투자기업 총 고정자본 형성

(단위: 백만 원)

업 종		2001	2002	2003	2004	2005
D151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 가공업	123.3	43.5	195.9	718.5	130.6
D172	직물 직조업	1,380.0	616.7	0.0	0.0	0.0
D193	신발 제조업	0.0	0.0	0.0	0.0	120.7
D232	석유정제품 제조업	4,151.9	33,215.3	4,529.3	6,794.0	5,661.7
D241	기초 화합물 제조업	50,596.2	44,449.8	7,923.9	44,321.2	7,126.9
D24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918.4	10,102.3	3,142.9	3,816.4	1,795.9
D251	고무제품 제조업	28,427.0	4,763.8	1,718.1	1,483.8	5,779.1
D25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	0.0	119.4	0.0	1,373.5
D271	제1차 철강 산업	0.0	0.0	14,726.5	0.0	2,819.9
D273	금속 주조업	0.0	0.0	585.7	0.0	13,648.6
D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456.4	1,368.1	926.8	662.0	617.8
D291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17.7	898.3	5,734.7	1,524.4	5,226.6
D292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167.9	0.0	0.0	0.0	0.0
D293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0.0	0.0	104.6	0.0	0.0
D295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76,855.7	2,082.2	0.0	2,839.4	0.0
D3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0.0	314.2	549.9	78.5	1060.6
D321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19,485.6	54,242.5	3,060.2	14,619.0	17,016.5
D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0.0	0.0	1,037.3	0.0	54.5
D331	의료용 기기 제조업	158.6	118.9	0.0	0.0	0.0
D33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400.3	0.0	0.0	0.0	0.0
D34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0.0	184,612.1	291,341.0	314,958.4	161,715.9
D343	자동차부품 제조업	2,759.5	11,365.3	11,484.9	5,383.5	7,106.3
D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84,075.0	3,787.4	0.0	3,685.1	682.4
D361	가구 제조업	255.3	69.5	0.0	299.9	0.0
D369	기타 제품 제조업	501.6	0.0	424.3	1,176.2	0.0

라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거래된다. FDI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구인투자 기업들이 얼마나 고정자본에 투자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는 발표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산업자원부가 제공하는 외구인투자기업 지도에 나타나 있는 동남권의 외구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자본금, 고용종사자수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구인투자기업의 연도별 총 고정자본 형성을 추정하였다.

외구인투자기업의 총 고정자본 추정을 위하여 우선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위치를 확인하여 동남권에 위치한 기업들을 추려내고, 이들 외구인투자기업들의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코참비즈 기업정보에서 찾아 모은 후, 통계청의 산업별 고정자본형성, 매출액, 종업원수와 비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연도별, 산업별, 지역별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www.kci.go.kr

고정자본 형성을 추정하였다.[3]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준연도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고정자본 형성을 구한 후, 균제상태에서 자본의 증가율은 성장률과 같다는 가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증가율을 구하였다.[4]

본 연구에서 추정한 외구인투자기업의 총 고정자본형성을 연도별, 지역별, 산업별로 분류하면 상기의 〈표 1〉과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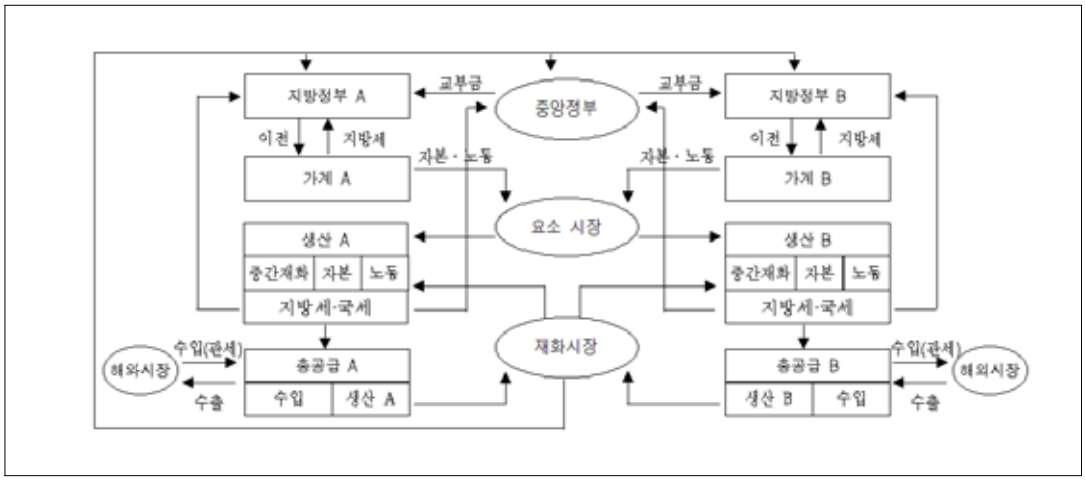
III. 분석모형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재화의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운 현실경제에서 특정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는 해당지역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그 효과가 파급되고 이는 다시 해당지역으로 역류되는 순환적 파급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외국인투자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측면과 지역경제의 특수성이 감안된 실증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욱이 FDI는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영덕·조경엽(2006a)이 구축한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MRDCGE)을 이용하여 개별 지역경제와 지역경제 간 거래를 통합하는 국가경제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FDI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림 1〉은 김영덕·조경엽(2006a)이 구축한 MRDCGE 모형경제의 재화 및 생산요소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MRDCGE는 지역별로 공급부문, 수요부문, 교역부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별 생산부문은 중간재화, 자본,

그림 1 _ MRDCGE 모형의 재화 및 생산요소 흐름도



3) 자세한 내용은 김영덕·조경엽(2006b) 참조.

4) 이러한 균제상태 가정은 본 연구가 FDI의 장기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과 부합함. 한편, 본 연구에서는 FDI가 실물 투자의 한 형태라고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였음.

www.kci.go.kr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타 지역과 해외로부터 수입한 재화를 합쳐 총공급을 결정한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총 재화는 국내 재화시장으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하게 된다. 지역별 수요부문은 가계 및 정부의 부문별 소비와 투자수요로 구성된다.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은 가격의 조정과정을 거쳐 청산된다. 재화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해당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공급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생산물 가격은 시장균형에 도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생산물은 해외로 수출되거나 또는 국내 및 지역 내 시장 소비재 및 투자재로 소비되고 생산자의 수입은 임금, 자본수익, 감가상각, 조세, 중간투입물 구매 등으로 지출되어, 균형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은 0이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세(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및 수출입상품세)와 지방세(재산세, 지방소비세 등)를 통해 세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정부지출과 가계이전으로 지출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양여금 그리고 세율인상(또는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재정불균형은 국세를 인상하거나 또는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한다. 가계는 자본과 노동의 공급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며, 이러한 수입은 소비, 저축 및 세금 납부를 통해서 전액 지출한다. 가계와 생산자는 각각의 제약 조건에서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한다.[5)]

본 연구에서 FDI는 단순히 외국인의 투자가 아니라 외국인이 실물자본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FDI가 국내에서 실물자본의 투자를 통해 경제에 기여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로 수식 상에서 FDI는 국내의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다만, 국내 투자와 다른 점은 국내투자의 경우 한 지역에 국내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 투자만큼 상쇄되어야 한다. 즉, 국내 투자는 투자지역의 선택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FDI의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고정자본이 투자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와 달리 외생적인 투자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FDI와 국내 투자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역과 대상산업은 지해명(2003)이 개발한 MRIO데이터에 기초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분류하였다.[6)] 분석대상지역은 〈표 3〉과 같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표 4〉와 같이 17개의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표 4〉는 MRIO 산업분류표에 기초하여 17개 산업으로 재분류된 분석대상 산업을 보여주고 있다. 1차 산업과 광업은 MRIO의 농림어업과 광업을

표 3 _ 지역분류

구분	지역구분	MRIO 분류
R01	서울권	서울・인천
R02	경기권	경기
R03	충남권	대전・충남
R04	충북권	충북
R05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제주
R06	강원권	강원
R07	경북권	대구・경북
R08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5) 본 연구의 모형은 김영덕・조경엽(2006a)의 모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자세한 모형구조와 수식은 김영덕・조경엽(2006a)을 참조하기 바람.

6) 한국은행의 2003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가 발표(2007.3)되기 전에 이 연구가 시작되어 부득이하게 지해명(2003)의 MRIO 자료를 사용하였음.

www.kci.go.kr

표 4_산업분류

구분	산업분류	MRIO 분류
S01	1차 산업 및 광업	1. 농림어업, 2. 광업
S02	화학제품	8. 석유화학, 9.정밀화학
S03	비금속광물 및 1차 금속	10. 비금속광물, 11. 1차 금속 및 금속제품
S04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12. 기계(메카트로닉스 포함), 16. 정밀기기
S05	전기 및 전자기기	13. 전기 및 가전
S06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	14. 반도체, 15. 정보통신기기
S07	수송장비	17. 자동차, 18. 조선, 19. 항공우주, 20. 기타 수송장비
S08	기타 제조업	3. 음식료 및 담배, 4. 섬유, 5. 의류, 6. 신발, 7. 목재종이, 21. 가구 및 기타 제조업, 22. 전력・가스・수도
S09	건설	23. 건설
S10	물류	26. 물류, 27. 해상물류
S11	도소매 음식숙박업	24. 도소매, 25. 음식숙박업
S12	문화 & 정보통신서비스	28. 문화, 29. 정보통신서비스
S1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S14	교육 및 사회보장	33. 교육 및 사회보장
S1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S16	기타 서비스	34. 사회 및 기타 서비스
S17	공공 행정 및 국방	32. 공공 행정 및 국방

포함하고 있다. 화학제품은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산업으로 구성된다. 비금속광물은 1차 금속과 금속제품산업을 포함한다. 수송장비는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기타 수송장비를 포괄하고 있다. 음식료 및 담배, 섬유, 의류, 신발, 목재종이,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전력 및 수도 등은 모두 기타 제조업을 통합・분류한다. FDI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달리 장기간 유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0년을 기준으로 3년 단위로 2021년까지를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다.

IV. 동남권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 분석

본 모형에서는 2001~2005년의 연평균 산업별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를 초기의 투자로 가정하였으며, 향후 산업별 FDI는 동남권의 GRDP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연도별 FDI 수준은 동남권의 GRDP 증가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성장률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지역은 재화의 수출입과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의해 연계되기 때문에 지역별 성장률에 따라 동남권의 FDI가 각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지역별 성장률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4개로 분류하였다.[7)]

시나리오 2와 3은 문형표(2004)의 2010~2020년 연평균 GDP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시나리오

7) 신뢰성을 가진 장기 성장률을 전망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음. 발표되는 전망치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발표된 성장률 전망치를 사용하였는데, 시나리오 1은 장기 성장률 전망치로 국가보고서에 사용한 것이어서 시나리오 1로 정하였고, 시나리오 2와 3은 잠재성장률을 구체적으로 총 요소생산성에 연계하여 구한 것으로 여기서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 전체에 대한 증가율을 가정한 것이며, 시나리오 4는 기존의 성장률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다소 과장된 시나리오임. 개별 시나리오의 차이는 성장률 규모의 차이이며, 성장률이 달라짐에 따라 파급효과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는 의도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www.kci.go.kr

표 5_지역별 GRDP 연평균 성장률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2006~2021년)

(단위: %)

구분	시나리오 1 (SCN 1)	시나리오 2 (SCN 2)	시나리오 3 (SCN 3)	시나리오 4 (SCN 4)
서울권	3.643	3.942	4.514	6.453
경기권	4.997	5.408	6.192	8.853
충남권	4.310	4.665	5.341	7.636
충북권	4.355	4.714	5.397	7.716
호남권	3.501	3.789	4.338	6.203
강원권	2.733	2.958	3.387	4.842
경북권	3.606	3.903	4.469	6.389
동남권	4.156	4.498	5.149	7.362
GDP	3.890	4.210	4.820	6.891

표 6_동남권의 FDI가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 (2006년 기준)

(단위: 10억 원)

구분	시나리오 1 (SCN 1)	시나리오 2 (SCN 2)	시나리오 3 (SCN 3)	시나리오 4 (SCN 4)
경기권	111.5	104.7	92.7	56.0
서울권	71.7	67.6	61.9	49.4
충남권	−14.4	−14.0	−12.9	−7.8
충북권	−8.8	−7.7	−6.1	−4.2
호남권	−158.5	−147.2	−126.9	−72.7
강원권	−0.4	0.0	0.7	1.4
경북권	51.9	53.3	57.7	97.8
동남권	712.0	740.6	795.2	982.3
합계	765.0	797.3	862.4	1102.2

2는 총 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1.5%일 때 성장률이며, 시나리오 3은 TFP성장률이 2.0%일 때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시나리오 1은 임재규(2004)의 GDP 성장률 전망이며, 시나리오 4는 1985~2003년의 연평균 GRDP 증가율을 적용한 전망이다. 시나리오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권의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충북권, 충남권, 동남권, 서울권, 경북권, 호남권, 강원권 순으로 증가율이 높다.

동남권의 FDI가 2006년도의 지역별 GRDP에 미치는 효과는 〈표 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성장률을 높게 가정할수록 FDI에 따른 동남권의 GRDP 증가액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에서 동남권의 GRDP 증가는 7,120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시나리오 2는 약 7,406억 원, 시나리오 3은 7,952억 원, 시나리오 4는 9,823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GRDP의 합계도 성장률이 클수록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1에서는 2006년도의 GRDP 합계가 7,650억 원 증가하고, 시나리오 2에서도 7,973억 원, 시나리오 3에서는 8,624억 원, 시나리오 4에서는 1조 1,022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동남권의 FDI는 다른 지역의 GRDP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남권의 FDI는 다른 지역의 GRDP를 시나리오 1에서는 530억 원, 시나리오 2에서는 567억 원, 시나리오 3에서는 672억 원, 시나리오 4에서는 1,199억 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남권의 FDI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별 GRDP변화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의 GRDP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지역의 GR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대체효과와 소득증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DI가 증가하는 동남권의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중간투입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이상의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www.kci.go.kr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은 수입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GRDP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권, 경기권, 경북권은 소득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이들 지역의 GRDP는 증가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동남권의 GRDP 성장률을 높게 가정할수록 소득효과는 작아지고 수입대체효과는 커진다는 것이다. 경기권을 예를 들어보면 시나리오 1에서 동남권 지역의 GRDP는 1,115억 원 증가하지만, 동남권 지역의 성장률이 큰 시나리오 4에서는 경기권의 GRDP증가가 56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GRDP가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더라도 동남권의 FDI는 지역 전체의 GRDP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7〉은 동남권의 FDI가 증가할 경우 2006년도의 지역별 투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DI와 국내투자의 대체관계로 국내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FDI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켜 고용 및 총 국내 투자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그리고 GRDP 변화와 마찬가지로 동남권의 성장률을 높게 가정할수록 동남권의 투자 증가폭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7〉에서와 같이 동남권의 FDI 증가에 따른 동남권의 투자 변화는 시나리오 1에서는 3,818억 원 증가하며, 시나리오 2에서 4,070억 원, 시나리오 3에서 4,585억 원, 시나리오 4에서 6,759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동남권의 FDI는 수입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동남권의 생산량과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타 지역의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타 지역의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대로 동남권의 FDI로 동남권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표 7 _ 동남권의 FDI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2006년 기준)
(단위: 10억 원)

구분	시나리오 1 (SCN 1)	시나리오 2 (SCN 2)	시나리오 3 (SCN 3)	시나리오 4 (SCN 4)
경기권	141.2	133.8	122.2	79.8
서울권	23.6	21.9	19.4	13.2
충남권	−3.2	−2.9	−2.4	−1.6
충북권	−1.9	−1.7	−1.4	−0.8
호남권	−43.9	−40.2	−33.9	−18.8
강원권	0.0	0.1	0.3	0.3
경북권	9.3	8.7	7.6	6.1
동남권	381.8	407.0	458.5	675.9
합계	506.9	526.7	570.3	754.2

재화의 가격이 인하된다면 타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타 지역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 이상의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수입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은 투자가 감소하고, 반대로 소득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권, 경기권, 경북권의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성장률이 클수록 소득효과는 작아지고 수입대체효과는 커져서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 투자 감소는 시나리오 4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권, 경기권, 경북권의 투자 증가는 시나리오 4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동남권의 FDI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지만, 국내 전체의 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동남권의 FDI 증가로 인해 동남권을 제외한 지역의 투자는 시나리오 1에서 1,252억 원, 시나리오 2에서 1,197억 원, 시나리오 3에서 1,118억 원, 시나리오 4에서 78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동남권의 FDI 증가에 따른 동남권의

www.kci.go.kr

표 8_동남권의 FDI가 지역별 소비에 미치는 효과 (2006년 기준)

(단위: 10억 원)

구분	시나리오 1 (SCN 1)	시나리오 2 (SCN 2)	시나리오 3 (SCN 3)	시나리오 4 (SCN 4)
경기권	-1.9	-1.7	-1.5	-1.1
서울권	-0.8	-0.8	-0.8	-0.8
충남권	0.3	0.3	0.2	0.1
충북권	0.2	0.2	0.2	0.1
호남권	2.9	2.7	2.3	1.2
강원권	0.2	0.1	0.1	0.1
경북권	-0.7	-0.7	-0.7	-0.7
동남권	250.8	253.3	257.7	268.2
합계	251.1	253.4	257.5	267.1

표 9_동남권의 FDI가 지역별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 (2006년 기준)

(단위: 10억 원)

구분	시나리오 1 (SCN 1)	시나리오 2 (SCN 2)	시나리오 3 (SCN 3)	시나리오 4 (SCN 4)
경기권	122.7	115.1	101.1	57.8
서울권	52.0	49.0	44.5	34.1
충남권	-16.0	-15.5	-14.1	-8.3
충북권	-8.2	-7.3	-5.7	-3.9
호남권	-132.1	-123.5	-107.6	-63.6
강원권	-0.6	-0.2	0.3	0.8
경북권	45.5	47.2	52.0	91.8
동남권	136.0	138.2	138.3	91.2
합계	199.3	203.1	208.8	200.0

소비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 8〉에서 보듯이 투자에 비해 소비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FDI는 동남권의 소비를 시나리오 1에서 2,508억 원, 시나리오 2에서 2,533억 원, 시나리오 3에서 2,577억 원, 시나리오 4에서 2,682억 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남권의 FDI가 기타 지역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동남권의 FDI가 증가할 경우, 2006년도의 지역별 순수출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동남권의 FDI로 인해 동남권의 순수출은 시나리오 1에서 1,360억 원, 시나리오 2에서 1,382억 원, 시나리오 3에서 1,383억 원, 시나리오 4에서 912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DP 변화나 투자변화와 마찬가지로 동남권의 FDI는 수입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수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남권의 FDI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타 지역의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동남권의 FDI로 동남권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동남권의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동남권의 수출은 증가하고 타 지역의 수출은 감소한다. 이상의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수입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은 순수출은 감소하고 반대로 소득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권, 경기권, 경북권의 순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남권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효과는 작아지고 수입대체효과는 커져서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의 순수출 감소효과는 줄어들어 시나리오 4에서 순수출 감소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반면 서울권, 경기권, 경북권의 순수출은 동남권의 FDI로 증가하지만 시나리오 4에서 증가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동남권의 FDI로 인해 순수출이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지만 지역 전체의 순수출은 증가한다. 동남권의 FDI증가로 인해 동남권을 제외한 지역의 순수출은 시나리오 1에서 633억 원, 시나리오 2에서 649억 원, 시나리오 3에서 705억 원, 시나리오 4에서 1,088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www.kci.go.kr

표 10 _ 지역별 취업자수에 대한 전제조건

(단위: 천 명)

구분	경기권	서울권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	강원권	경북권	동남권
2006	5,348	6,155	1,623	683	2,635	671	2,585	3,644
2009	6,140	6,358	1,705	692	2,634	673	2,673	3,757
2012	7,049	6,567	1,791	702	2,632	674	2,716	3,873
2015	8,092	6,784	1,881	711	2,631	676	2,785	3,993
2018	9,290	7,008	1,977	721	2,629	677	2,855	4,116
2021	10,665	7,239	2,077	730	2,628	679	2,927	4,243

고용관련 모형의 결과는 취업자수가 아니라 근로소득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용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표 10〉은 지역별, 연도별 취업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준균형하의 고용은 2004년도 지역별 취업자 수에 2000~2004년도 지역별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역별 고용을 추정하였으며, 지역별 2000~2004년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은 경기권 4.7%, 서울권 1.09%, 충남권 1.65%, 충북권 0.45%, 호남권 -0.019%, 강원권 0.07%, 경북권 0.83%, 동남권 1.02%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모형에서 추정된 동남권의 FDI에 따른 근로소득변화를 지역별 취업자수 전망에 적용하여 고용변화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특정지역의 FDI로 인한 고용변화는 임금보다는 지역 간 노동이동이나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실질임금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근로소득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표 11〉은 동남권의 FDI에 따른 지역별 고용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동남권의 FDI로 인한 동남권의 고용은 시나리오 1에서 3,646명, 시나리오 2에서 3,685명, 시나리오 3에서 3,762명, 시나리오 4에서 4,07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지역별 GRDP나 투자의 변화와 같이 동남권의 FDI로 인해 경기권, 서울권, 경북권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 등의 지역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남권 이외 지역의 고용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지역의 FDI가 증가

표 11 _ 동남권의 FDI가 지역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2006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시나리오 1 (SCN 1)	시나리오 2 (SCN 2)	시나리오 3 (SCN 3)	시나리오 4 (SCN 4)
경기권	28	26	22	16
서울권	10	10	11	10
충남권	-5	-4	-4	-2
충북권	-2	-2	-2	-1
호남권	-49	-44	-36	-16
강원권	-1	-1	0	0
경북권	10	10	9	9
동남권	3,646	3,685	3,762	4,076
합계	3,636	3,678	3,763	4,092
연평균 ('06~'21)	3,941	3,985	4,074	4,420

www.kci.go.kr

하면 지역 간 노동이동보다는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가 보다 활발히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남권의 FDI는 동남권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도 앞서 살펴본 동남권의 투자, 소비, 수출의 변화와 유사한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 〈표 12〉에서 보듯이 동남권의 FDI는 GDP를 6,077억 원~9,979억 원 증가시키고, 소비를 2,511억 원~2,671억 원, 투자를 3,883억 원~6,843억 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제 활성화로 정부 세수입도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지출도 346억 원~1,01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_동남권의 FDI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 (2006년)

(단위: 10억 원)

구분	시나리오 1 (SCN 1)	시나리오 2 (SCN 2)	시나리오 3 (SCN 3)	시나리오 4 (SCN 4)
GDP	607.7	642.1	712.1	997.9
소비	251.1	253.4	257.5	267.1
투자	388.3	413.2	465.0	684.3
정부지출	34.6	42.0	55.8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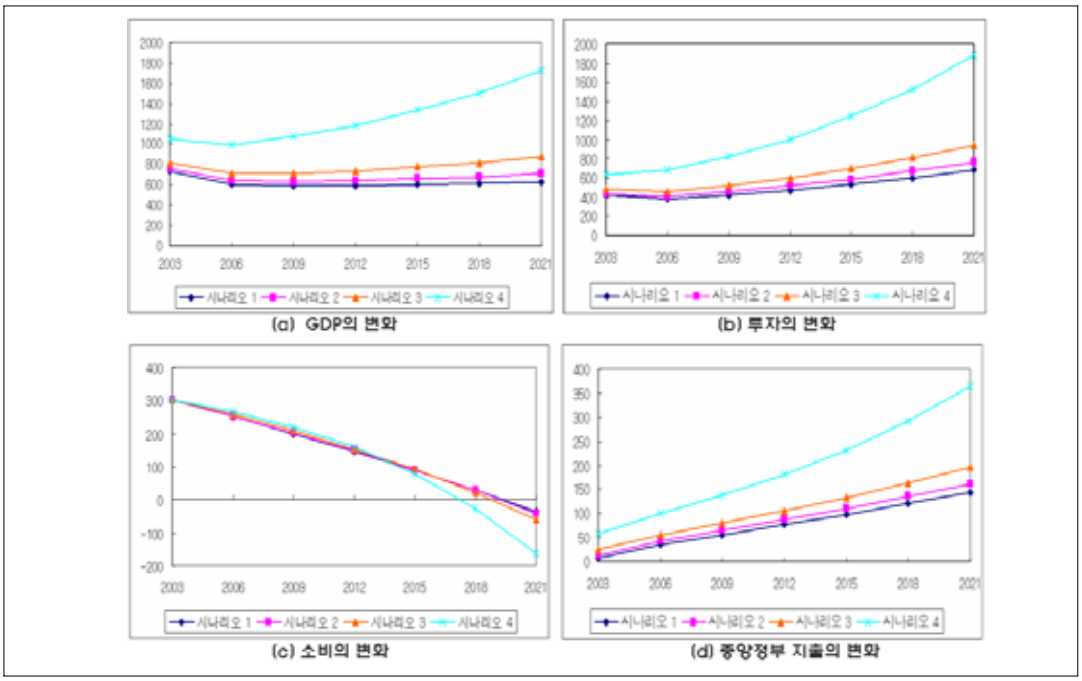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남권의 FDI는 동남권의 투자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림 2〉에서 보듯이 소비는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남권의 FDI는 동남권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GRDP, 고용창출, 순수출 및 투자를 증가시켜 GDP, 투자, 소비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지역별 소득분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통해 동남권의 FDI가 지역 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소비자의 후생효과는 동남권

그림 2_동남권의 FDI에 따른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단위: 10억 원)



www.kci.go.kr

표 13_동남권의 FDI에 따른 지역별 동등후생 변화
(단위: 10억 원)

구분	시나리오 1 (SCN 1)	시나리오 2 (SCN 2)	시나리오 3 (SCN 3)	시나리오 4 (SCN 4)
경기	7.3	7.8	9.2	11.6
서울	13.8	14.9	17.8	22.8
충남	1.7	1.7	1.6	0.4
충북	0.4	0.4	0.4	0.3
호남	7.2	6.8	6.2	1.5
강원	0.2	0.3	0.3	0.3
경북	0.9	0.1	−1.6	−11.0
동남권	1,570.7	1,672.1	1,887.9	2,907.9
합계	1,602.3	1,704.0	1,921.7	2,933.8

표 14_동남권의 FDI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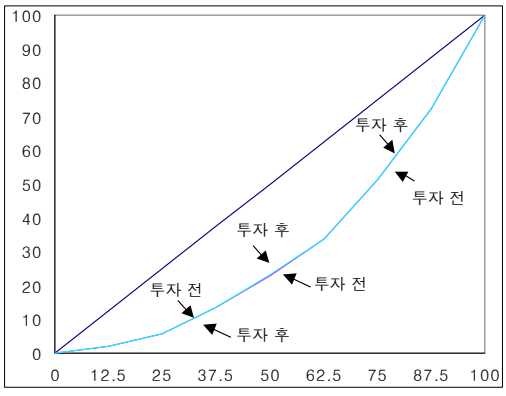
구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21년
FDI 前	시나리오 1 (SCN 1)	0.4202	0.4215	0.4228	0.4241	0.4266
	시나리오 2 (SCN 2)	0.4195	0.4209	0.4223	0.4236	0.4263
	시나리오 3 (SCN 3)	0.4181	0.4196	0.4212	0.4227	0.4258
	시나리오 4 (SCN 4)	0.4142	0.4163	0.4183	0.4204	0.4290
FDI 後	시나리오 1 (SCN 1)	0.4202	0.4215	0.4228	0.4241	0.4266
	시나리오 2 (SCN 2)	0.4195	0.4209	0.4223	0.4236	0.4264
	시나리오 3 (SCN 3)	0.4181	0.4196	0.4212	0.4227	0.4259
	시나리오 4 (SCN 4)	0.4144	0.4164	0.4184	0.4205	0.4291

의 FDI가 이루어지기 전의 소비자 후생수준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보상수준을 의미하는 동등후생변화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표 13〉은 동남권의 FDI에 따른 지역별 소비자의 동등후생변화(Equivalent Variation)를 보여주고 있다. 동남권의 FDI로 인해 동남권의 소비자 후생은 시나리오에 따라 1조 5,707억 원~2조 9,079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서울권이 138억 원~228억 원, 경기지역이 73억 원~116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RDP 변화와 달리 동남권의 FDI는 경북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통해 동남권의 FDI가 지역별 소득 재분배 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표 14〉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후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될 수 있다. 〈표 14〉에서 보듯이 지니계수로 평가할 때 동남권의 FDI는 지역 간 소득분배를 미미하나마 악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기준균형하에서 지니계수는 0.4195~0.4263로 추정되나, 동남권의 FDI가 이루어지면 지니계수는 0.4195~0.4264로 증가한다. 이와 같이 동남권의 FDI가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경기권 및 서울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표 1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역의 성장률을 높게 전제하는 시나리오 4의 소득분배가 성장률을 낮게 전제한 다른 시나리오보다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있

그림 3_동남권의 FDI에 따른 로렌츠 곡선의 변화 (SCN 2, 2006년)

(단위: %)



www.kci.go.kr

표 15 _ 동남권 FDI의 지역별 파급 효과(SCN 2 기준, 2006년)

(단위: 10억 원)

구분	GRDP	투자	소비	순수출
경기권	104.7	133.8	-1.7	115.1
서울권	67.6	21.9	-0.8	49.0
충남권	-14.0	-2.9	0.2	-15.5
충북권	-7.7	-1.7	0.2	-7.3
호남권	-147.2	-40.2	2.3	-123.5
강원권	0.0	0.1	0.1	-0.2
경북권	53.3	8.7	-0.7	47.2
동남권	740.6	407.0	253.3	138.2
합계	797.3	526.7	253.4	203.1

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소득불평등도 지수(inequality index)로 흔히 사용되는 로렌츠 곡선을 통해 지역간 소득분배의 형평성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니계수와 달리 동남권의 FDI 이전과 이후의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고 있어 동남권의 FDI가 지역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지 아니면 향상시키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V. 결론

본 연구는 김영덕·조경엽(2006a)이 개발한 MRDCGE모형을 이용하여 17개 산업과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동남권 지역 내 FDI의 파급효과를 지역별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산업별로 초기 FDI 액수를 가정하고 동남권의 성장률(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별 FDI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남권의 FDI는 동남권의 GRDP뿐만 아니라 전국 GRDP 합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의 FDI로 인해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의 GRDP는 오히려 감소하고, 서울권, 경기권, 경북권의 GR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입대체효과와 소득증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DI가 증가하는 동남권 지역 내의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중간투입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이상의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충남권, 충북권, 호남권은 수입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GRDP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울권, 경기권, 경북권은 소득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이들 지역의 GR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남권의 FDI가 증가할 경우 동남권의 순수출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의 순수출 증감의 차이가 존재하나 동남권과 전 지역의 순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FDI는 동남권의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타 지역의 고용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FDI는 지역간 노동이동보다는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남권의 FDI가 국민계정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하면, GDP는 6,077억 원~9,979억 원, 소비는 2,511억 원~6,843억 원, 투자는 3,883억 원~6,843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동남권 지역의 FDI는 고용창출과 경제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지니계수로 평가할 때 동남권의 FDI는 지역별 소득재분배를 미미하게나마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로렌츠 곡선을 통해서 평가할 때는 동남권의 FDI가 지역별 소득분배

www.kci.go.kr

를 악화시키는지, 개선시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동남권 지역의 FDI는 지역별 소득재분배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동남권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국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 FDI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FDI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재정자금지원을 지자체 투자유치활동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독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세감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지급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급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가 주요 타깃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현금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대한 결정권 및 자율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투자협상 시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율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로는 추정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지역의 FDI 증가는 다른 지역의 경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며, 이러한 차이는 소득효과와 수입대체효과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FDI의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은 FDI 증대에 대한 지역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FDI를 위한 권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체로 동남권과 경북을 포함하는 지역과 충남, 충북, 호남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지역이 FDI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8] 둘 중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다른 지역의 경제를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두 지역이 경쟁적인 관계에서 보완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두 지역 간에 소득효과가 커지고 수입대체효과가 작아지도록 지역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나리오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장률이 높을수록 수입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기가 호전될수록 지역균형에 입각한 투자조정이 지역 간 경제불균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군수 외. 2006. “해외첨단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분석”. 정책연구.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김영덕・조경엽. 2006a. “수도권 공공 기관이전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연구 제54권 제2호. 서울 : 한국경제학회. pp. 143-184.

_____. 2006b. 동남권 내 외국인투자가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부산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2006. 우리나라 FDI유치 현황과 과제. 서울 : 대한상공회의소.

문형표. 2004. 인구 고령화와 거시경제.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박용규. 2004.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8)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권역이 아니라 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www.kci.go.kr

안종석. 1994.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이용섭. 1999.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임재규. 2004.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제1차연도) –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모형개발 및 시험분석. 경기 : 에너지경제연구원.

장윤종·황윤진. 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서울 : 산업연구원.

지해명. 2003. MRIO 시산표작성: 지역 간 교역계수 추정연구. 서울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Boskin, M. J. and W. G. Gale. 1987. New Results on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the International Location of Investment. ed. M. Feldstein. *The Effects of Taxation on Capital Accumulation*.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pp201–222.

Hall, R. E. and D. W. Jorgenson. 1967.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0, no.4. pp391–414.

Hartman, D. G. 1981. "Domestic Tax Policy and Foreign Investment: Some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784. pp475–488.

_____1984. "Tax Policy and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Tax Journal* vol.37. pp475–488.

Slemrod, J. 1990. Tax Effec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Evidence from a Cross Country Comparison. ed. Razin A. and J. Slemrod. *Taxation and the Global Econom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79–121.

UNCTAD. 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 FDI from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Young, K. H. 1988. "The Effects of Taxes and Rates of Retur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Tax Journal* vol.41. pp109–121.

• 논문 접수일: 2008. 11. 18
• 심사 시작일: 2009. 1. 11
• 심사 완료일: 2009. 1. 21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FDI in Dongnam Region on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y

Key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Dongnam Reg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an effect of foreigners direct investment in the Dongnam region(Busan, Ulsan and Gyeongnam) on other domestic regions and national economy with MRDCGE(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y were as follows. First, FDI of the Dongnam region increased GRDP of the Dongnam GRDP of the whole area. Second, in an effect of FDI of the Dongnam region on national account, GDP, consumption and investment was increased. Third, in the event of making an estimate of income redistribution with Gini coefficient, FDI of the Dongnam region decreased income redistribution by each region slightly. However, in the event of making an estimate of income redistribution by each region through Lorenz curve, it was not distinct whether FDI of the Dongnam region improved or decreased income redistribution by each region. Conclusively, it is estimated that FDI of the Donganm region improves an efficiency of other regions and national economy as well as the Dongnam region, not largely decreasing income distribution by each region.

동남권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주제어: 외국인직접투자, 다지역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동남권 경제

본 연구는 다지역 동태적 일반균형모형(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MRDCGE)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특정지역인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에 유입될 때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동남권의 FDI는 동남권의 GRDP를 7,120억 원~9,823억 원 증가시키고, 전 지역의 GRDP는 7,650억 원~1조 1,022억 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남권의 FDI가 국민계정에 미치는 효과로 GDP는 6,077억 원~9,979억 원, 소비는 2,511억 원~6,843억 원, 투자는 3,883억 원~6,84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득재분배의 경우, 지니계수로 평가할 때 동남권의 FDI는 지역별 소득재분배를 미미하게나마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로렌츠 곡선을 통해서 평가할 때는 동남권의 FDI가 지역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지, 개선시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동남권의 FDI는 지역별 소득재분배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동남권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 국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www.kci.go.kr